

전남

# 녹차 품질인증 표준시스템 만든다

농기원 연구소 … 日·中 사례 수집·성분분석도

수확시기가 아닌 성분분석과 관능평가를 기초로 해 국가에서 녹차품질을 인증하는 표준화 시스템이 만들어 질 전망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소장 박종대)는 지난해 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기획연구과제로 '한국차 품질평가 및 등급제에 관한 기초연구'가 채택됨에 따라 관련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녹차연구소는 연말까지 국내 녹차

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국가 표준 등급표지 방법을 제설정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녹차를 많이 소비하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도 수집할 예정이다. 또 녹차품질평가사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녹차연구소는 그동안 수확시기별 성분분석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녹차 제다(製茶)법

의 표준 매뉴얼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차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품질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기준 관능평가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차의 기능성분을 포함한 녹차제품의 등급을 설정하려고 한다"며 "녹차에 대한 품질기준 및 등급화 방법이 마련된다면 국내 소비자들이 품질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녹차소비가 늘고 한국녹차의 품질 고급화, 규모화로 대외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카페인(쓴맛)과 카데킨 함량이 낮고 총질소와 총아미노산(단맛), 탄닌(떫은맛) 성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녹차연구소 신기호 연구실장은 "녹차의 색, 향, 맛 등을 오감(五感)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관능평가와 성분분석을 가미해 과학적인 품질 등급을 설정하려고 한다"며 "녹차에 대한 품질기준 및 등급화 방법이 마련된다면 국내 소비자들이 품질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녹차소비가 늘고 한국녹차의 품질 고급화, 규모화로 대외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전남도내 첫 노지 모내기 30일 순천시 해룡면 선월마을 허민재씨 녹 3천여㎡

에서 시작됐다. 이날 모내기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됐으나 다른 지역에

/순천=위직령기자 jwi@

선인장 관상식물  
다육전시회 눈길

여수시청

사계절 관상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다육(多肉)전시회'가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여수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다육사랑연구회(회장 진숙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여수시청 로비에서 지난 29일부터 내달 2 일까지 5일간 50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다육은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 지역에서 자라는 선인장과 식물들로,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꽃 빛깔이 신비로워 최근 1~2년 사이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육연구회 김문선 총무는 "다육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기 때문에 비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잘맞는 식물이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관광산업과 연계해 여수박람회에 참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태기자

## 2013함평엑스포도 국제 행사로 치른다

정부 승인 국고 지원

'2013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이하 2013 함평엑스포)'가 지난 29 일자로 2008년에 이어 국제행사 국가승인을 받았다.

국제행사 승인은 기획재정부 국제 행사 심의위원회가 행사의 사업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승인하는 것으로 이번 국가승인에 따라 2013 함평엑스포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 함평엑스포는 2013년 4월 19 일부터 7월 19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과 생태습지공원, 화양근린공원, 함평현 일대 등 109만㎡의 행사장에서 환경과 생태, 곤충과 인간이 연계된 학술·교양·전시·공연 행사 등으로 펼쳐진다.

함평군은 이번에 국제행사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국내외 관람객 104만 명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다음달 중에 함평엑스포 공원 일원에서 엑스포 국가승인 공표, 213명나라 나비날리기 등 '2013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국가승인 기념행사'를 열어 엑스포 개최 분위기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엑스포는 국비 77억원을 지원받은 지난 2008년 엑스포에 이어 두 번째 국제행사로서 그동안 쌓아온 기법을 활용해 한층 완성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국가적인 도약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교육장은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강찰활동을 실시해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혁기자 hwang@

## "교육비리 척결하자"

순천교육청 결의대회

순천교육청(교육장 김광호)은 최근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단계별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최근 교육비리 발생과 관련해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교육은 물론 교장, 교감, 행정실장등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의 관행적·구조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실시됐다.

이에 앞서 순천교육청은 3월 한 달간 교장, 교감, 행정실장 회의를 차례로 가졌다. 또 교육현장의 잔존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전남도교육청과 연계해 공직기강 확립 및 학교현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호 교육장은 "앞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강찰활동을 실시해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영취산 진달래 축제 2일 개막

산신재·품바공연 등 행사 다채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가 4 월 2일부터 4일까지 영취산(해발 510m) 돌고개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영취산 진달래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요무대, 시민화합 한마당, 스포츠댄스, 진달래아

무용단, 시립국악공연, 청소년문화공연, MBC 축하쇼, 꽃길 따라 시화전, 진달래와 추억민들기, 흥교밟기, 화전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과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주행사장 주변에 특산물 판매코너를 마련

해 돌산갓김치, 건어물 등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 중의 하나인 영취산은 삼일동과 상암동에 걸쳐 진달래가 광활하게 굽 라를 이루고 있다.

여수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시외 버스터미널과 여천역에서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고 흥국사와 진달래축제 행사장 근처인 GS칼텍스 후문 앞, 삼일동, 종흥초교, 상암초교 등에 승용차 4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다.

문의 061-691-3104.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고흥군 - 남부발전 양해각서

고흥군은 30일 한국남부발전(주)와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흥군과 한국남부발전(주)는 1단계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그동안 정부발전차체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금 애자리에 마파크, 고흥그린솔라미움, 풍력발전 단지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안정적이면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기존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참여기업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주) 이상호 본부장은 "그동안 죽적된 경험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고흥군의 우수한 여건과 추진의지를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 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iju@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개시결정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토지인 101필지는 공시지가로는 23억 8천만 원 가량이며, 10필지는 해남읍 연동리의 윤선도 유적지에 포함됐다.

토지 소유주인 윤정현의 손자(76)는 "해당 땅은 선조 대대로 내려온 땅이다.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의를 했을 뿐 친일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개시결정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토지인 101필지는 공시지가로는 23억 8천만 원 가량이며, 10필지는 해남읍 연동리의 윤선도 유적지에 포함됐다.

토지 소유주인 윤정현의 손자(76)는 "해당 땅은 선조 대대로 내려온 땅이다.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의를 했을 뿐 친일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개시결정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토지인 101필지는 공시지가로는 23억 8천만 원 가량이며, 10필지는 해남읍 연동리의 윤선도 유적지에 포함됐다.

토지 소유주인 윤정현의 손자(76)는 "해당 땅은 선조 대대로 내려온 땅이다. 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의를 했을 뿐 친일 재

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효성공인증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 독서실 임대

- 동구 대외동 등부경찰서 인근  
- 고시화원내 독서실 170평

- 보1 억5천만 원390만원  
(관리비 포함)

\* 빌딩(임대용·투자용)

- 토지 244평 건평 393평  
(영원·사무실적합)

- 매가 19억

- 보증금 1억6천만 원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중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신  
시면 연락주십시오.

금매물 즉시 증가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현 1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절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절포가 4~5

칸 정도에 절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